

考試科目	韓文	系所別	外交學系,	考試時間	2月3日(六)第二節
------	----	-----	-------	------	------------

韓文 韓翻中(每題廿五分)

1. 글로벌 시대를 맞아 전 세계 금융 소비자들은 점차 편리한 서비스를 찾고 있다. 또 주요국들이 핀테크산업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바뀌면서 글로벌 핀테크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다.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철저히 준비를 하고 동남아 시장에 진출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지 시장조사를 통해 각 나라에 맞는 솔루션을 기획하고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지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동남아 시장에서 '핀테크 한류' 열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의 올림픽 참여로 평화의 발판이 마련된다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유화 공세를 편 뒤 도발을 밥 먹듯이 해온 게 북한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김정은이 미국엔 '핵단추'로 위협하고, 남쪽엔 올림픽 참가라는 '비둘기'를 날린 의도는 뻔하다. 한미 동맹을 균열시키자는 속셈이다. 평창올림픽이 김정은의 이런 책동이 통하는 기회가 되도록 해선 안 된다. 남북대화를 하더라도 미국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국제 공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트럼프는 자신이 한미 FTA 폐기를 준비하도록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는 2일 워싱턴포스트 보도가 사실임을 확인했다. 이는 트럼프 특유의 협상 전술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무지와 고집이 최악의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가 진정으로 FTA 폐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참으로 비이성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FTA는 안보동맹과도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한미 교역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커지는 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냉철한 판단을 기대한다.
4.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의 양과 질, 소득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며 저출산 등 중장기 도전 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무엇보다 자율차·스마트시티 등 핵심 선도사업을 집중 지원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는 약속은 꼭 지키기 바란다.

備註	一、作答於試題上者，不予計分。 二、試題請隨卷繳交。
----	-------------------------------